

통계로 보는 시사상식

‘학교의 IT 활용은 초>중>고 순’

글_김규태(전자신문 기자)



“지금 귀하가 쓰고 있는 PC는
어떤 수준이신가요?
펜티엄D급? 펜티엄4급?
아니면 펜티엄3급 이하?”

우리나라 PC 보급률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다. 이미 3명중 2명 이상이 PC를 가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0년에는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쯤 되면, 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해봐야 할 때는 아닌가 싶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펜티엄4급 이상이 72%, 펜티엄3급이 24.3%, 펜티엄2급이 2.4%, 펜티엄1급이 0.6% 정도로 추산된다. 비교적 고성능 PC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서 초중고등학교의 PC 기종 현황 자료를 찾았다. 두 통계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 학교의 PC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PC의 경우 의외로 펜티엄3급 이하의 PC들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교 PC 10대 중 4대는 펜티엄3급 미만이라는 것이다. 펜티엄1급과 펜티엄2급도

아직 10만대 이상이 학교에 있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자 학생들이 무슨 고급 PC가 필요하냐고, PC 및 인터넷이 아이들 미래를 망친다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IT인들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의 PC나 PC방 등 초등고등 학생들이 PC를 접하는 환경은 고성능 PC일텐데, 학교에 가면 낙후 PC를 쓰게 되니,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우지 않겠냐는 걱정이다.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서 문서프로그램을 보니 소프트웨어도 대부분 2002년 버전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작업한 문서를 학교에서 열 수 없는 불평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말한다.

또 요즘 교육용 콘텐츠가 DVD로 제작되지만, 학교PC 중에 DVD 플레이어가 장착된 PC가 매우 드물다. 펜티엄3급 이하 PC에 DVD 플레이어가 있을리 없고 펜티엄4급 PC에서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CD 플레이어만 장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교육은 정상적으로 될까?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시길 바란다. 얼마나 만족스럽냐고.

사이버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시장이 후끈후끈하다. 관련 업체 주식이 올랐다는 뉴스가 신문 증권면을 종종 장식한다. 학교의 PC 기종별 현황과 온라인 교육시장 얘기가 웬지 '언밸런스' (unbalance)하다. PC방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집PC나

학교PC로 공부할 텐데,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PC 상황이 이렇다면,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이 될지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에서 낙후된 부분을 찾으려면 정치와 교육이라는 것에 반기를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우리가 그처럼 자랑하는 '정보통신'의 기세가 후진성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세금과 정부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TTA**

◆ 2006년 학교 PC현황

(단위 : 명, 대)

구분	학생수	펜티엄1		펜티엄2		펜티엄3		펜티엄4 이상		계	PC당 학생수
합계	7,799,605	24,805	1.8%	81,989	5.9%	419,843	30.1%	869,485	62.3%	1,396,122	5.6
초	3,925,043	10,579	1.8%	31,876	5.5%	175,141	30.3%	360,670	62.4%	578,266	6.8
중	2,075,311	5,440	1.6%	22,106	6.5%	110,155	32.5%	201,713	59.4%	339,414	6.1
고	1,775,857	8,589	1.8%	27,386	5.9%	130,133	27.9%	300,225	64.4%	466,333	3.8
특수	23,394	197	1.6%	621	5.1%	4,414	36.5%	6,877	56.8%	12,109	1.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6년 한국의 PC 성능별 보급률

구분	보급률
펜티엄 4급이상	72.0%
펜티엄 3급	24.3%
펜티엄 2급	2.4%
펜티엄 1급	0.6%

<2006년도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자료 재구성

